

PSM제도 변화에 따른 지원 강화 필요

사업장 스스로 공정안전관리체계 구축해야

구미 불산누출 사고 이후로 화학물질로 인한 누출, 폭발, 화재사고 등 중대산업사고가 빈발하면서 화학사고가 안전보건계의 주요 이슈로 급 부상했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박형수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센터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박형수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먼저 수도권 중방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중방센터는 수도권 및 강원지역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3월 16일 개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방센터는 물론 다른 중방센터 역시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전개하셨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PSM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등급이 오른 사업장은 30%에 그치고, 나머지는 등급이 떨어지거나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CEO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업무 담당자나 근로자의 노력만으로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통해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개선하고, 다시 평가를 받고 싶다고 신청한 사업장이 관내에서만 20개소가 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감독활동도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방센터에서는 관내 PSM 사업장 담당자로 구성된 '수도권 공정안전협의회'와 협력해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협력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설명회가 화학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LNG 취급소, 저유소 등 단순 저장설비를 갖춘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화학공장, 저유소, LNG 취급소 등 업종을 세분화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중방센터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PSM 등급이 낮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업종별 워크숍을 보다 더 활성화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여력이나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요청, 위험경보제 실시 등 특별관리를 해나가면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것입니다.

오는 9월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소개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21종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에 염산, 황산 등 급성독성·폭발성 물질 30종이 추가됩니다. 또한 제조·취급·저장 물질의 변경 또는 저장량의 증가로

가동 중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들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9월 13일부터, 5명 미만 사업장은 2015년 9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관내에서도 약 200여 개 사업장이 신규로 PSM제도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사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SM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새롭게 제도권에 포함되는 사업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설계 도면과 같은 기초적인 공정안전자료가 없고,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 전문 컨설팅업체에 맡기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PSM 제도를 규제의 하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PSM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공정안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내 안전인들과 전국 근로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모든 안전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불안전한 요소들을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지가 모아진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안전문화를 꽃피우는 일도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